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진호**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인구이동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분석하여 이동의 동인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시점 이전 5년간에 시·도간 이동을 경험한 가구주와 단독가구주이다.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이동자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동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별로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이동에서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출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 주택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동자의 특성과 이동이유를 교차분석해 보면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혼인상태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였으며 이밖에도 학력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 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요인은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 양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관련 이동으로서 이들을 지방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요체임을 확인하였다.

핵심단어: 수도권인구집중, 인구이동의 선별성, 이동요인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jhchoi@ajou.ac.kr

I. 서

최근 2005년 인구 총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시, 도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완화경향이 2000~2005년에는 다시 반전되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1995~2000년 5년간에는 전국적으로 증가한 인구의 76.3%가 수도권에서 증가하였으나 2000~2005년간에는 전국 인구 증가분의 123.5%가 수도권에서 증가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경향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진호, 2007). 또 이와 더불어 그 이전과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서울로의 전입이 이전보다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지역 간 균형발전문제와 관련지어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그 동안 많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수도권의 규제완화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간의 치열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내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자료에 기초해서 센서스의 1년 전, 5년 전 거주지 항목을 이용하여 인구이동의 양과 이동 방향, 이동자의 현재의 특성 등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김대영·이효구, 1976; Kim and Sloboda, 1981; 이한순·이우리, 1983; 최진호, 1982, 1986, 1994, 1997, 2002; Noh, 1991).

인구센서스 자료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에 기초한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인구이동통계자료도 이동자의 이동방향이나 이동 총량, 그리고 성 및 연령 등의 극히 제한된 이동자의 특성분석만 가능하다. 따라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자료나 매년 집계되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자료로는 이동의 원인이나 이동자의 선별성을 분석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인구이동 연구의 취약 과제는 오직 대규모의 표본조사를 통해서만 그 분석이 가능한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센서스의 사후조사에서 그리고 1983년의 인구이동특별조사에서 이동이유가 조사된 적이 있었을 뿐 이동이유나 이동자의 선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조사 자료가 전무하였었다. 다행히 통계청에서는 1997년에 또 다시 인구이동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특

별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알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도권 전입자와 수도권에서 전출해 나간 전출자, 그리고 수도권 내 시·도간 이동자의 선별성을 비교하고, 둘째, 이들 이동자의 이동 이유를 이동의 흐름별로, 또 이동자의 여러 특성 별로 분석하여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 자료는 1997년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 자료이다. 이 조사는 1997년 7월 1일을 조사 기준일로 하여 7월 10일까지 10일 간 조사되었으며 전국의 약 40,700 표본가구의 가구원 약 12만 6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출생지, 직전 거주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등 다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동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이동 사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시점전 5년 간의 이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이동의 공간 단위는 수도권 이동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로 하였다.

II.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이동의 선별성이란 개인의 특성 별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이동하는가 하는 성향을 나타내 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동에 있어서의 선별성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장년이나 노년층보다 이동의 성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자들이 기혼자에 비해 더 잘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으로의 전입자는 누구이며 또 수도권에서 전출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선별성 분석은 이동자의 이동전 시점에서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동 후 현재 시점에서의 특성분석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제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 1>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수도권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분류하여 이동자의 여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전입이동자는 1992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이들 수도권

으로 이동하여 온 사람들이다. 수도권 전출이동자는 거꾸로 1992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나 같은 기간사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해 나간 사람들이다. 한편 수도권내 이동자는 1992년에 수도권에서 거주하였으나 1997년에는 수도권내의 다른 시·도로 이동하여 수도권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이다.

또 이들 이동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포함된 수도권 비이동자는 1992년과 1997년 사이에 거주지 이동은 하였지만 두 시점 모두에서 수도권의 같은 동에서 거주하여 동 경계를 넘어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비수도권 비이동자도 마찬가지로 두 시점에 비수도권의 같은 동, 읍, 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분석에 포함된 개인들은 1992~1997년 5년 사이에 가구 구성원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주만, 그리고 가구원 구성이 다른 경우에는 그 함께 살지 않았던 가구원 모두를 포괄한다.

<표 1>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1)

		수도권				비수도권	
		전입	전출	내	비이동	비이동	
		이동	이동	이동	비이동	비이동	
성별	남자	47.3	50.6	49.6	51.3	51.3	
	여자	52.7	49.4	50.4	48.7	48.7	
연령	9세 이하	8.7	11.4	11.8	11.5	7.3	
	10-14	4.2	5.3	5.2	8.9	8.6	
	15-19	5.9	4.2	2.2	7.7	9.5	
	20-24	20.5	11.8	7.7	6.1	13.2	
	25-29	26.8	21.5	23.1	12.8	15.3	
	30-34	15.2	20.2	23.8	16.7	12.4	
	35-39	8.2	11.9	13.3	13.7	11.1	
	40-44	4.0	5.3	5.3	7.7	7.2	
	45-49	1.7	2.1	2.0	4.3	4.4	
	50-54	1.2	1.4	1.4	3.5	2.9	
	55-59	1.2	1.5	1.3	2.4	2.4	
	60-64	.7	1.1	1.2	2.0	1.8	
	65세이상	1.7	2.2	1.6	2.7	3.9	
교육수준	무학 및 미취학	3.2	5.9	4.9	5.9	6.2	
	초등학교	12.0	13.9	12.5	19.0	18.2	
	중학교	8.5	11.9	8.6	17.7	17.9	
	고등학교	43.4	40.6	43.7	42.0	38.4	
	전문대	7.0	5.5	7.3	5.4	8.5	
	대학교	23.7	20.2	20.2	9.9	10.8	
	대학원	2.2	2.0	2.9	1.3	0.8	
(사례수)		(1,100)	(1,311)	(1,562)	(1,422)	(2,401)	

자료: 통계청, 1997년 인구가동특별조사 원자료.

먼저 <표 1>에서는 이들 이동유형별로 성, 연령, 그리고 학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때 이들의 특성은 이동 당시가 아니라 조사 현재 시점의 특성이다. 따라서 성과 연령의 경우는 선별성을 판단하는 데 별 무리가 없으나, 교육수준의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별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수도권 이동의 유형별로 이동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52.7%로 남성보다 많아 수도권 전출자나 수도권 내 이동자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도권으로 전입하고 있다. 또 비이동자와 비교할 때도 이동자 모두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의 이동 성향이 남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이들 이동자와 비이동자를 비교해 보면 이동자 중에서는 수도권 전입자들이 다른 수도권 이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도권 전입 이동에서는 25-29세가 2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24세가 20.5%를 나타내 20대가 전체 이동자의 47.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전출 이동에서는 20대의 비율이 33.3%로 30대의 32.1%와 거의 비슷하며, 수도권 내 이동에서는 20대가 30.8%, 30대가 37.1%로 오히려 30대가 더 많다.

한편 이동의 선별성을 보기 위해서 수도권 전입 이동자와 비수도권 비이동자의 연령을 비교해 보면 20대와 30대 초반에서 수도권 전입자의 비율이 비수도권 비이동자에 비해 월등히 높아 다른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젊은 층의 이동 성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동의 연령 선별성은 수도권 전출이동과 수도권 비이동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동유형별로 이동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전입 이동자의 학력이 다른 이동자집단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수도권 전입 이동자는 25.9%로, 다른 이동 집단인 수도권 전출 이동자의 22.2%나 수도권 내 이동자의 23.1%보다 높다. 한편 선별성은 될 수 없지만 다른 비이동자 집단과 비교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수도권 비이동자에서는 11.2%, 비수도권 비이동자에서는 11.6%로서 어떤 유형이든지 이동자집단의 학력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력과 이동간의 선별성에도 기인하지만 이동 그 자체가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동기에서도 이루어져 이동의 결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표 2>는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이동 유형별로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몇 가지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표 2>의 특성은 이동이 일어나기 전인 조사 시점에서 5년 전의 특성으로서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특성을 비교 함으로써 이동

의 선별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거처의 점유형태에 있어서 수도권 전입 이동자와 비수도권 비이동자를 비교하면 이동이 일어나기 전인 5년 전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비율이 수도권 전입 이동자는 51.5% 인데 비해서 비이동자는 34.8%로서 자기 집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 수도권 전출 이동자와 수도권 비 이동자를 비교해 보아도 앞서와 같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동자의 경우에 자가 주택 거주율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층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혼인 상태를 보면 수도권 전입자의 65.9%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표 2> 수도권 이동자의 선별성(2)

단위: %

		수도권 전입	수도권 전출	수도권 내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이동	이동	비이동	비이동
거처점유 형태	자기집	51.5	28.1	32.1	25.0	34.8
	무상	9.0	9.5	7.6	3.2	4.3
	전세	27.5	44.9	48.0	57.2	35.9
	보증금 있는 월세	9.1	9.4	10.6	12.5	11.2
	보증금 없는 월세	1.9	4.0	1.0	.4	3.3
	사글세	1.1	4.0	.6	1.6	10.6
혼인상태	미혼	65.9	51.9	53.3	34.4	45.4
	배우자 있음	31.1	44.5	43.5	59.1	46.9
	사별	2.2	2.8	1.9	5.6	5.8
	이혼	.8	.8	1.3	.9	1.9
경제 활동 상태	일하였음	40.2	57.6	60.6	60.3	52.3
	일시휴직	.2	.3	.1	.3	.2
	구직활동	2.4	3.1	2.9	1.5	2.8
	가사	19.0	21.1	21.7	25.1	21.4
	통학	33.6	15.4	12.7	9.3	19.2
	연로 연소	4.5	2.6	2.1	3.6	4.1
직업	관리자	5.2	2.5	3.3	2.1	1.6
	전문가	8.6	5.1	6.3	3.5	3.8
	준전문가	13.3	9.8	16.9	13.4	6.6
	사무직	19.3	19.4	22.2	15.1	9.0
	서비스직	9.9	11.6	7.6	10.8	14.0
	판매직	9.1	12.9	10.6	10.3	10.6
	농림어업 종사자	6.1	1.5	.4	1.1	7.3
	기능 및 기계조작원	23.8	31.8	28.0	35.1	38.4
	단순노무직	4.7	5.3	4.8	8.5	8.7
	(사례수)	(1,100)	(1,311)	(1,562)	(1,422)	(2,401)

전에 미혼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수도권내 이동자의 53.3%나 비수도권 비이동자의 45.4%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전출해 나간 이동자에게 있어서도 미혼자 비율이 51.9%로서 수도권 비이동자의 34.4%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미혼자들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한편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수도권 전입이동의 경우 다른 이동 유형이나 비이동자에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즉 수도권 전입자 중에는 취업자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적은 40.2%를 보이는 반면 통학의 비중은 33.6%로서 크게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이동자 중에는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 비이동자의 이동전의 직업 분포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전입자 중에는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등의 고학력 직종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서 기능 및 기계조작원의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이동의 선별성을 보기위하여 수도권 전입 이동자와 비수도권 비이동자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수도권 전입자에게서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서비스직의 비율이 비수도권 비이동자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도권 전입자에게서 발견되는 분명한 직업선별성은 그런데 수도권 전출자에게서는 그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수도권 전출자와 수도권 비이동자를 비교하면 관리자의 비율은 거의 같은데 전문가와 사무직 종사자는 수도권 전출자에게서, 준전문가는 수도권 비이동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수도권 전출 이동에서도 약간의 직업선별성은 있으나 수도권 전입자에게서 보는 바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Ⅲ. 우리나라 시·도간 이동자의 이동 이유

1. 이동유형별 이동이유

이제 이 절에서는 한국의 5년간 시·도간 이동자의 이동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1997년 인구이동 특별조사에서는 이동이유를 크게 직업, 주택, 가족, 교육, 주거, 근린환경, 자연환경·기타의 6개로 대분류한 후 다시 이들을 세분하여 모두 40개의 이동 이유를 집계하였다. 이때 이동 이유는 지난 5년간

전가구원이 함께 살았을 경우는 가구주만 응답하도록 하였고, 지난 5년간 전가
구원이 같이 살지 않았거나 혼자 살았을 경우는 이들도 역시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응답에 포함시켰다.

이제 <표 3>은 지난 5년 동안의 시·도간 이동자중 현재 가구주만 골라서
이동이유를 이동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동이유 분석에서 가구주만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전 가족이 함께 이동할 경우에 가구주 이외의 다른 성원들은
'가족을 따라서' 라고 이동이유를 응답하고 있어 가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
응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가구 단위의 정확한 이동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동자 개개인을 모두 포함시켜서 이동이유를 분석해 보면 전국적으로
34.8%는 가족을 따라서 이동하였고, 여기에 다른 가족요인을 모두 합치면 56.1%
는 가족요인 때문에 이동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동이유 분석에서는 이동
자 개개인을 모두 그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가구를 하나의 이동 단위로 보아
서 가구주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때 이동의 유형은 수도권 전입자,
수도권 전출자, 수도권 내 이동자, 그리고 비수도권내 이동자로 구분하였다.

먼저 표에서 우리나라 전체 시·도간 가구주 이동자의 이동이유를 보면 직업
이유가 가장 많아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 요인이 23.2%를 점
한다. 교육으로 인한 이동은 14.1%이며 주택 요인도 12.8%나 된다.

<표 3> 한국 5년간 이동자의 이동이유: 가구주

		이동유형				단위: %
		수도권 전입	수도권 전출	수도권내 이동	비수도권내 이동	합계
이동 이유	직업요인	67.6	45.4	34.6	45.3	46.8
	주택요인	6.9	13.0	25.8	6.9	12.8
	가족요인	12.9	25.8	31.2	21.4	23.2
	교육요인	10.7	12.8	3.2	24.1	14.1
	주거근린요인	1.1	1.0	4.5	1.2	1.9
	자연환경 기타	.9	2.1	.8	1.1	1.2
	(사례수)	(466)	(524)	(628)	(913)	(2,531)

직업이유를 다시 세분화하면 19.1%는 구직, 취업 때문에 그리고 15.1%는 근무
지이동으로 인하여 이동하였다. 한편 가족요인 중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많아 전체 가구주 이동자의 13.3%가 결혼 때문에 이동하였다. 이밖에도

가족요인 중에서는 분가 또는 독립하려고, 가족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 이동도 주요한 이동이유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요인 중에서는 진학, 학업 때문에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가구주 이동자의 12.2%가 여기에 해당된다. 의외로 자녀교육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동한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전체 가구주 이동의 1.4%에 불과하다. 주택요인은 다시 세분하면 전, 월세등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가 3.7%로서 주택요인 중에서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집세 때문인가 2.6%, 좀 더 큰 평수로서 2.3%로 나타나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주거의 불안정성이 주택요인의 주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체 시·도간 거주주 이동자의 이동이유는 그런데 이동 유형별로 많은 편차를 보여 흥미롭다. 이동이유 중에서 직업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든 이동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비중은 이동 유형별로 많은 편차가 있다.

직업요인의 비중이 가장 큰 이동 유형은 수도권 전입 이동으로서 수도권 전입 가구주의 67.6%는 직업요인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그들 중 36.5%는 구직과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19.3%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이동하였다. 이동이유 중에서 차지하는 직업요인의 비중은 수도권 전출이동이나 비수도권내 이동에서는 각각 45.4%와 45.3%로서 전국 평균인 46.8%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며, 수도권내 이동에서 그 비중이 34.6%로 가장 작다.

수도권내 이동에서 직업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수도권 지역은 이미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는 대도시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취업이나 전근 때문에 거주지를 바꾸지 않아도 출, 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다른 이동유형에서 보다도 가족이나 주택요인의 비중이 더 커서 가족요인이 31.2%, 주택요인이 25.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 가족요인을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전체 가족요인 중 2/3 가량은 결혼 때문에 이동한 것으로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요인으로는 전, 월세의 계약기간 만료, 좀 더 넓은 집으로, 집세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수도권 전출자의 경우는 다른 이동의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요인이 이동의 가장 주요한 이유이나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이동유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다른 이동유형에서는 구직이나 취업으로 인한 이동이 전근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수도권 전출 이동에서는 전근으로 인한 이동이 직업요인의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으며, 사업 때문에 이

동하는 비율도 구직이나 취업보다도 오히려 약간 더 많다. 따라서 같은 직업요인이라도 수도권 전입이동은 주로 새로운 취업기회에 유인되어서 일어나는 이동으로 보이며, 반면 수도권 전출이동은 주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근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동이유 중 교육요인은 비수도권내 이동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24.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으며, 거꾸로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그 비율이 3.2%로 이동유형 중 가장 낮다. 이때 비수도권내 이동에서 보이는 교육요인의 세부 내용은 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진학과 학업 때문으로 나타나며 자녀교육을 위한 이동은 그리 많지 않다.

2. 이동자의 특성별 이동이유

앞에서는 인구이동의 흐름별로 이동자의 이동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동자의 특성별로는 이동이유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려한다. 먼저 이동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직업요인이 48.8%로 여성의 39.4% 보다 많으며 주택요인과 가족요인의 비율도 여성보다 많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교육요인이 27.8%로서 남성의 10.4% 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동자의 연령별로 보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는 역시 교육요인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후반이 되면 직업요인이 51.4%로 가장 주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가족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이 시기가 취업과 결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이 되면 가족요인의 비율이 어떤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기가 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되면 가족요인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직업요인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동시에 주택요인도 이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40대 후반기에 가서는 직업요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그 대신 가족요인과 교육요인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때 교육요인의 증가는 자녀교육으로 인한 이동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50세 이후가 되면 직업요인은 대폭 감소하고 그 대신 주택, 가족요인은 증가하는데 특히 이시기에는 이전 연령층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근린, 자연환경요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이동이유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이동의 필요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표 4> 전체 이동 가구주의 특성별 이동이유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단위: % 주거자연 환경/기타
성별	남자	48.8	13.6	23.9	10.4	3.3
	여자	39.4	9.9	20.5	27.8	2.4
연령	15-19	19.4	2.8	15.3	62.5	0
	20-24	38.7	2.7	11.7	46.2	0.7
	25-29	51.4	8.9	25.7	11.9	2
	30-34	45.0	14.6	36.1	1.8	2.5
	35-39	55.9	21.1	17.4	2.5	3.2
	40-44	56.5	17.9	13.6	7.6	4.3
	45-49	46.4	16.7	17.9	10.7	8.3
	50세이상	35.6	22.5	25.0	4.4	12.5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39.3	26.2	22.1	6.6	5.7
	중학교	46.9	18.3	25.8	4.7	4.2
	고등학교	53.8	14.2	25.5	3.5	3
	전문대	44.1	10.6	21.2	20.8	3.4
	대학교	38.6	8.0	20.1	30.8	2.6
	대학원	48.9	12.2	21.1	15.6	2.2
거처점유 형태	자기집	42.8	4.0	24.1	26.4	2.7
	무상	64.1	2.3	28.6	2.3	2.8
	전세	46.0	23.6	20.9	6.0	3.5
	월세/사글세	49.9	19.4	22.3	4.7	3.6
혼인상태	미혼	43.2	6.5	29.6	18.9	1.7
	배우자 있음	56.0	21.9	13.3	4.1	4.8
	사별/이혼	40.1	19.7	29.3	3.4	7.5
경제활동상태	일하였음	51.3	16.3	26.0	2.6	3.8
	구직활동	64.8	6.6	28.6	.0	0
	가사	27.9	20.6	38.2	8.1	5.2
	통학	38.6	4.0	12.5	43.7	1.2
	연로/연소	55.0	11.3	18.8	10.0	5.1

이동자의 교육수준과 이동이유를 분석해 보면 연령에서 보는 것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몇 가지 경향성은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여 생기는 주거 불안정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 가족요인의 비율은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가족요인의 대

부분이 결혼으로 인한 이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요인은 특히 전문대학과 대학교 수준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이동의 결과로서 현재의 학력수준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동전의 거쳐 점유형태와 이동이유와의 관계를 보면 이동전에 자기 집에서 거주하였던 이동자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교육요인으로 인한 이동이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는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이동전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다가 고등 교육을 위하여 이동한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5년 전 이동전에 전세나 월세 등의 거처에 거주하였던 이동자는 상당수가 주택요인에 이끌리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이동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혼인 상태를 보면 이동전에 미혼이었던 이동자는 직업 요인 이외에도 가족요인과 교육요인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결혼으로 인한 이동과 고등교육을 위한 이동이 많기 때문이다. 이동전에 이미 기혼이었던 이동자는 직업요인의 비율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동시에 주택요인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이동전에 사별, 이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이동자의 경우는 가족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동전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이동이유의 차이를 보면 이동전에 이미 취업을 하고 있었던 이동자는 직업요인이 51.3%로 주로 일과 관련되어서 이동을 하였고, 26.0%는 가족요인으로 이동해 결혼으로 인한 이동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응답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동전에 구직활동을 하였던 이동자는 직업요인에 의한 이동비율이 매우 높으며 동시에 가족요인의 비율도 높다.

이동자중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전에 학생이었던 이동자는 43.7%가 교육요인으로 이동을 하였고, 이동전에 주부였던 이동자는 가족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동자의 조사시점의 특성, 혹은 이동전 특성이 이동이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연령이 이동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령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른 특성들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별 이동이유

이제는 특별히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도권 이동자의 특성에 따라 이동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려한다. 먼저 <표 5>는 수도권 전입 가구주의 특성별로 이동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수도권 전입 가구주의 표본 수는 466명으로서 범주가 많은 교차 분석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표 5> 수도권 전입가구주의 특성별 이동이유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단위: % 주거자연 환경/기타
성별	남자	68.8	6.9	12.9	9.0	2.4
	여자	64.7	6.8	12.8	15.0	0.8
연령	15-19	55.6	.0	11.1	33.3	.0
	20-24	64.0	2.2	13.5	20.2	.0
	25-29	73.5	5.3	9.3	11.3	0.7
	30-34	72.7	5.7	18.2	1.1	2.2
	35-39	63.5	17.5	12.7	3.2	3.2
	40-49	65.8	5.3	2.6	21.1	5.3
	50세이상	46.4	14.2	28.6	3.6	7.2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52.9	23.5	11.8	5.9	5.9
	중학교	46.3	14.6	22.0	9.8	7.3
	고등학교	75.6	4.8	14.4	3.3	2
	전문대	65.5	3.4	17.2	13.8	.0
	대학교	65.6	7.3	7.3	19.2	0.7
	대학원	57.9	.0	15.8	26.3	.0
거처점유 형태	자기집	67.9	2.4	13.8	14.6	1.2
	무상	73.8	.0	19.0	4.8	2.4
	전세	65.3	13.2	10.7	7.4	3.4
혼인상태	월세/사글세	66.7	17.5	8.8	5.3	1.7
	미혼	69.1	3.0	14.3	12.6	1.0
	배우자 있음	67.1	13.0	8.9	6.8	4.1
	사별/이혼	38.5	30.8	23.1	7.7	.0
	일하였음	69.7	8.2	13.5	4.9	3.6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87.5	.0	12.5	.0	.0
	가사	34.8	21.7	34.8	8.7	.0
	통학	64.9	3.3	9.3	22.5	.0
	연료/연소	80.8	7.7	7.7	3.8	.0

우선 수도권 전입 가구주의 성에 따른 이동이유의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직업요인에 더 많이 유인되고 있으며, 거꾸로 여성은 교육 때문에 이동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 두 요인 이외의 주택이나 가족요인은 성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연령에 있어서는 사회진출이 활발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직업요인의 비율이 높아 73%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요인은 30대 후반과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다. 한편 가족요인은 연령에 따른 편차가 다른 요인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데 30대 후반과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다. 이는 30대 초반은 결혼 때문에, 그리고 50대 이상은 가족과 가까이 혹은 자녀와 함께 살려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요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본인의 진학과 학업 때문으로 보이며, 40대에서도 교육요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입가구주의 조사 시점의 교육수준에 따른 이동이유를 보면 직업요인은 고등학교수준에서 가장 높아 75.6%를 보이며 대학교 수준에서는 65% 정도를 나타낸다. 주택요인은 저학력 집단에서 그 비중이 높으며 가족요인은 학력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교육요인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커지는데 이는 본인들의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기전의 거주점유형태는 이동이유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점유형태별로 직업요인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며 주택요인은 자기 집이 아닌 이동자에서 그 비율이 높으며, 거꾸로 자가의 경우는 교육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이동전의 혼인상태가 미혼이든 혹은 기혼이든 직업요인에 유인되어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족요인과 교육요인이, 그리고 기혼의 경우는 주택요인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동전의 경제활동상태는 이동이유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전에 이미 취업 중이었던 이동자는 대부분이 직업요인 때문에, 그리고 일부가 가족요인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고, 학생이었던 이동자는 직업과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전입하였다. 한편 이동전에 주부였던 이동자의 이동이유는 직업과 가족, 주택요인이 골고루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전출해 나간 이동자는 수도권 전입자와는 특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인가? 이제 이를 알기 위해서 <표 6>은 수도권 전출자의 특성별 이동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524명이다. 우선 이동자의 성에 있어서 수도권 전입자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 간에 직업요인의 비율이

<표 6> 수도권 전출 가구주의 특성별 이동이유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주거자연 환경/기타
성별	남자	48.9	13.3	24.9	10.2	2.7
	여자	26.8	11.0	30.5	26.8	4.9
연령	15-19	.0	9.1	27.3	63.6	.0
	20-24	24.6	1.4	13.0	60.9	.0
	25-29	39.2	9.3	35.1	13.4	3.1
	30-34	48.6	16.9	33.1	1.4	0
	35-39	61.1	16.7	17.8	.0	4.4
	40-44	65.3	12.2	18.4	2.0	2
	45-49	54.2	12.5	20.8	8.3	4.2
	50세이상	33.3	21.4	28.6	.0	16.7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40.0	17.1	37.1	.0	5.7
	중학교	45.5	12.7	38.2	.0	3.6
	고등학교	48.1	17.3	29.4	1.9	3.3
	전문대	57.1	14.3	14.3	11.4	2.9
	대학교	38.8	6.1	17.6	35.2	2.4
	대학원	60.0	15.0	20.0	5.0	.0
거처점유 형태	자기집	39.1	1.9	23.6	31.7	3.8
	무상	63.5	1.9	30.8	.0	3.8
	전세	47.4	24.2	21.3	5.7	1.4
	월세/사글세	42.0	13.0	36.0	4.0	5
혼인상태	미혼	35.7	7.2	33.3	22.1	1.6
	배우자 있음	59.1	18.6	16.6	1.6	4
	사별/이혼	17.6	17.6	47.1	5.9	11.8
경제활동상태	일하였음	55.1	15.0	25.9	1.1	3
	구직활동	50.0	16.7	33.3	.0	.0
	가사	11.5	15.4	61.5	3.8	7.7
	통학	21.2	2.4	12.9	62.4	1.2
	연로/연소	20.0	20.0	20.0	20.0	20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비율도 65% 이상이었는데 전출자의 경우는 직업요인의 비중이 낮고 여자의 비율은 26.8%로 전입자와 비교해 매우 낮다. 반면에 전출자의 경우는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전입자에 비해서 크다.

연령에 있어서도 전출자는 24세 미만에서는 교육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있어서도 직업요인의 비중이 작고 가족요인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전출자에 있어서는 직업요인의 비율이 전입자에 비해 낮고 반대로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대학교 수준에서 교육요인이 35.2%로 꽤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자 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전입도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교육을 위한 이동이 쌍방향으로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전출이동자의 교육목적 이동은 거처의 점유형태에서 자기집이나 혼인 상태에서 미혼의 경우에, 또 경제활동상태에서 이동전에 학생의 경우에 그대로 반영되어 꽤 높은 교육요인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간의 시·도간 이동을 한 이동자의 경우는 특성별로 이동이유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표 7>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이동이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주택요인이,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가족요인의 비중이 각각 더 크게 나타난다.

연령에 있어서는 각 연령계층별로 이동이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즉 결혼의 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요인이 40% 이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동요인으로 작용해 직업요인을 상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45세 이상이 되면 주택요인이 40%를 넘어서면서 가장 주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주택요인의 비중은 20세부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은 직업보다는 주택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촉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주택요인에 의한 이동은 학력이 낮을수록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져 예컨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는 그 비율이 52.4%에 이르고 있으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해 대학교 학력에서는 18.4%로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이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동전의 거처의 점유형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동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세를 들었던 경우 주택요인이 34~36%를 점하는데 비해서 자기 집에서 살았던 경우는 12.2%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동전의 혼인상태도 이동이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혼의 경우는 가족요인이 직업요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혼의 경우는 직업요인과 더불어 주택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이동전에 이미 취업중인 이동자에게는 직업과 주택 그리고 가족요인이 거의 비슷하

<표 7> 수도권내 이동 가구주의 특성별 이동이유

		단위: %				
		직업요인	주택요인	가족요인	교육요인	주거자연 환경/기타
성별	남자	34.5	26.5	30.8	2.8	5.4
	여자	34.8	21.7	33.7	5.4	4.3
연령	15-19	.0	.0	.0	100.0	.0
	20-24	57.5	12.5	17.5	10.0	2.5
	25-29	32.8	20.1	43.3	.7	3
	30-34	27.7	23.8	41.6	1.5	5.5
	35-39	40.7	29.3	21.4	3.6	5
	40-44	40.0	36.4	10.9	5.5	7.2
	45-49	25.0	40.0	15.0	.0	20
	50세이상	28.6	37.1	22.9	5.7	5.8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19.0	52.4	23.8	.0	4.8
	중학교	45.5	40.9	9.1	4.5	0
	고등학교	34.2	27.1	31.5	2.0	5.1
	전문대	31.7	21.7	38.3	1.7	6.7
	대학교	35.1	18.4	35.6	4.6	6.3
	대학원	35.3	23.5	26.5	8.8	5.9
거처점유 형태	자기집	24.5	12.2	51.5	5.6	6.1
	무상	62.3	5.7	32.1	.0	.0
	전세 월세 / 사글세	33.8 41.8	36.3 33.7	21.7 17.3	2.1 3.1	6 4.1
혼인상태	미혼	31.3	16.1	47.7	1.9	3.1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39.6 17.6	36.1 41.2	13.0 29.4	3.9 5.9	7.4 5.9
경제활동상태	일하였음	33.6	28.0	30.8	2.0	5.6
	구직활동	52.0	8.0	40.0	.0	.0
	가사	33.3	29.6	29.6	7.4	.0
	통학	42.4	13.6	31.8	9.1	3
	연로/연소	.0	40.0	40.0	.0	20

게 영향을 미치나, 이동전에 학생이었던 이동자는 직업요인과 가족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수도권 전입, 전출,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자의 특성별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이동의 흐름별로 개인적 특성이 이동이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동이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과 혼인상태 등의 생애주기변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 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는 이동의 흐름과 맞물려서 이동이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V. 요약과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센서스 자료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이동통계자료를 가지고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에 시행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이동의 선별성 분석에서는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이동성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동자 그룹 중에서는 수도권 전입이동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층의 이동성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동자 그룹 중에서는 수도권 전입이동자가 가장 젊고 수도권 전출이동, 수도권내 이동의 순으로 젊은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의 경우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소유자의 이동성향이 높는데 수도권 전입자의 학력이 수도권 전출자나 수도권내 이동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동 전에 자기 집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동성향이 더 높으며,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더 많이 이동하였다. 한편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는 취업자 보다는 학생들의 이동 성향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들의 이동성향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이유는 이동의 흐름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수도권으로의 전입이동은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도권전출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더불어 가족요인이,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가족요인과 주택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는 직업요인 중에서도 구직이나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수도권 전출 이동에서는 전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같은 직업요인이라도 이동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상이하였다. 주택요인은 집세나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주거의 불안정성 때문에, 가족요인은 주로 결혼으로 인한 이동으로 드러났다.

이동이유는 또한 이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

데 남자는 직업요인에, 여자는 가족요인에 더 많이 유인되고 있었다.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개인적 특성은 연령과 결혼상태와 같은 생애주기와 관련된 변수, 그리고 학력과 거처의 점유형태와 같은 사회계층 변수들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발견은 교육요인 중에서는 본인의 교육이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이동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수도권 전입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출자에 있어서도 교육을 위한 이동이 많아 교육 목적의 이동은 쌍방향으로 모두 비슷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가 수도권 인구정책에 대해서 갖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취업기회에 유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이다. 이동의 동인으로서 교육기회는 취업과 비교한다면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 교육을 위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 기회를 얻어 다시 전입하는 현상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도권의 규제 강화를 통한 일자리의 재배치라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고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통한 권한의 강화와 함께 재정적 획기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대영·이효구 (1976)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특징, 1965-70》 한국개발연구원.
- 이한순·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변화에 관한 계량적 연구, 1960-80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제24권.
- 최진호 (1982)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권.
- _____ (1986) “인구분석 및 이동의 특성과 전망” 《한국인구학회지》 제9권.
- _____ (1994) “한국의 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의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제 17권.
- _____ (1997) “인구이동패턴의 변화, 1960-1990” 《인구변화와 삶의 질》 일

신사.

- _____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 제 13장, 통계청.
- _____ (2007) “최근 한국 인구이동의 특징과 변화”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종합분석》 통계청.
- Kim, Dae Young and John Sloboda (1981) “Migration and Korean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 Noh, Hee-Bang (1991) *The Spatial Pattern and Process of Migration in Korea, 1960-1985*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2008. 8. 20 접수 | 2008. 11. 20 채택]

Selectivity and Reasons for Move of Inter_Provincial Migrant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pital Region

Jin Ho Choi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electivity and reasons for move of internal migrants in Korea. There have only been a few studies available on the issues of selectivity and reasons for move of internal migration in Korea, mainly due to the lack of appropriate data. The main source of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the raw data set of the 1997 Special Migra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alysis of selectivity of those who moved across the provincial boundary revealed that females, young adults, singles in their marital status and more educated are more likely to move. Among various reasons for move, employment related reason is the most important for all migration streams. But with different migration streams, diverse patterns are emerged. For those who moved into the Capital Region, employment related reason is outstanding. But those who moved out from the Capital Region, moved for employment as well as family related reasons. For movement within the Capital Region, housing related reason is equally important together with employment and family reason. The analysis also found that among individual attributes, age and marital status affect most significantly to the reasons for move. Education level and housing ownership are also important for explaining for variations in reasons for move.

Key Words: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migration selectivity, causes of migration